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13>

대승으로 나아가는 열가지 법

서다림 속에서 나타난 부처님 경계의 여러 가지 신통변화를 찬탄하던 문수사리동자는 선주누각(善住樓閣)으로부터 나와서 무량한 동행(同行)보살, 신중(神衆) 등과 함께 부처님 처소에 와서 모든 공양거리로 공양한 후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인간을 교화하러 떠났다.

를 칭한다. 이에 문수보살은 "선남자 선여인이 열 가지 대승으로 나아가는 법을 성취하면 여래의 지위에 빨리 들어간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법을 설한다.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착한 뿌리를 모으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모든

고달프지 않음과 한 중생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수 바라밀다를 수행하여 여래의 모든 힘을 성취하며,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모든 중생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여래의 모든 힘을 성취하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이나라."

입법계품에서는 이러한 열 가지 법을 성취하는 것을 고달파하지 않으면 능히 선근을 기르며, 소송의 지위에 떨어지지 않고, 여래의 힘을 얻어 여러 마귀와 외도들을 굴복시키며, 모든 번뇌를 말하고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여래의 지위에 가까워진다고 설하고 있다.

문수보살이 열 가지 대승으로 나아가는 법을 설하면서, 이 법을 성취하는 데에 고달파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그 열 가지 법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때

법 성취함에 고달파 하지 말것 강조 보살행은 발원통한 신념과 실증

부처님을 뵈옵고 섬기고 공양하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모든 부처의 법을 구하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온갖 바라밀다를 행하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모든 보살의 삼매를 성취하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온갖 세상에 차례로 들어가는 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사방의 부처님 세계를 두루 장엄하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일체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는 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모든 세계의 모든 겁에서 보살의 행을 성취하는데 마음이

문일 것이다. 고요하고 깨끗한 경계를 지향하는 성문 연가의 소송의 경계와는 달리, 보살은 일체의 시간과 장소에서 항상 중생들과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여 부처님의 경계를 펼쳐려 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대승의 경계로서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단순한 불법 이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대승의 마음을 확고하게 일으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⑧

법계연기에 대한 인식

보조는 화엄의 원돈신하는 그 가르침이 많지만, 모두가 죽은 말이라고 규정한다. 그 이유는 사립들에게 앞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깨달음으로 장애를 일으키며, 더러움이면 더러움이 장애가 된다. 양자는 모두 양극단으로 중도가 아니다. 법계연기란 더러움과 깨끗함, 착함과 악함, 범부와 성인이라는 이원론적인 집착을 벗어난 세계의 참된 실상이다. 보조가 세계의 진실한 모습으로써 법계연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참다운 법계를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말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꽃의 진실한 모습에 접근한다. 이때 부정하는 대상은 법계가 아니라, 법계에 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얽이다. 분별과 집착의 토대가 되는 의미와 그 작용을 깨뜨림으로써 오히려 그 대상 자체를 적나라하게 경험한다. 말

러므로 선문의 언어는 인식에 의해서 대상을 지시함으로써 의미를 획득하는 대응이론을 거부한다. 오히려 선의 언어는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는 말(破病之談)이고, 그 대상 자체를 온통 드러내는 말(全提之語)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화엄의 언어는 언표로서 A와 반드시 상응되는 대상을 전제하여 A가 아닌 대상을 구별하고, 그럼으로써 구성되는 개념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다. 선문의 언어는 A 그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A와 非A의 구별을 함께 소멸시키고, 그럼으로써 구체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如實知) 온전히 드러낸다.

주체·대상 벗어난 '있는 그대로'의 자리

하자면 A는 A가 아닐 때, 역설적으로 바로 A가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때 단순히 A를 부정만 하는, 아무 것도 없는 진공(眞空)은 분명하게 아니다. 간화선에서 말하는 대상부정은 단순한 언어의 작용을 떠나서 것이 아니라, 언어를 떠나고 근심이 끊어짐으로써 드러나는 법계를 단박에 경험하는 통로다. 그

그러나 회두에서 말하는 대상관계에 대한 부정은 논리적인 작용이 아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실존적인 입장이다. 삶에 대한 그 자체로의 직면을 포함한다. 만약 간화선에 대한 논의에서 학문적인 설명만 있고, 그곳에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직면으로 질문이 부재하다면, 결국은 개념을 가지고 사랑하는 선병이 떨어지게 된다. 그것은

비구들은 문수보살의 이러한 법문을 듣고 곧 '결립 않는 눈으로 모든 부처의 경계를 봄'이라고 하는 삼매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문수보살의 법문을 통해서 이제 아무런 막힘이나 결립이 없이 자유자재하게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비구들은 모든 세계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이해를 가지게 되고, 수많은 보리심·삼매·바라밀다·큰 지혜를 성취하였으며, 보살의 마음에 머물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비구들이 보살의 마음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자 문수보살은 그들에게 권하여 보현행에 머물게 해서 사방의 모든 부처님 계신 데에서 몸을 나타내어 모든 부처님 법을 구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입법계품에서는 대승으로 나아가려는 뜻을 세워서 보살의 마음을 확고하게 가지면 누구든지 보현행을 실천하여 사방세계에서 부처님 법을 성취 할 수 있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위에서 설한 대승으로 나아가는 열 가지의 법은 대승의 보살이 실천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앞으로 전개되는 선재동자의 구법내용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나친 대승불교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진정으로 우리 불교인들이 대승으로 나아가는 열가지 법을 실천수행하는 데에 고달파 하지않는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점을 반성하게 되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대승의 보살행은 신념의 행이요, 실증(實證)의 행이다. 보살행에서 끊임없는 발원(發願)이 강조되는 것은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극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마음의 심층구조

감각기관으로부터 파동이 뇌에 전달되면 파동은 기억에 저장된 파동과 비교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때 기억으로부터 상기된 파형과 외부로부터 입수된 파형이 동일하면 그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기억으로 부터 상기된 파형과 외부로부터 입수된 파형이 동일하지 않음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뇌의 홀로그램(hologram)'이라고 하였다. 칼 프리브 램이 말하는 '뇌의 홀로그램'은 '뇌의 정보장'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많이 진전된 인식 이론이다. 불교의 12연기법에 의하면 갖난아기는 명색(名色)을 갖추고 태어난다고 했

들리고 애쓰고, 슬픔은 멀리하고 싶어진다. 또 성인은 취(取)의 본성에 의해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집착을 가진다고 하였다(有).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고(苦)를 없애는 방법으로 유(有), 취(取), 및 애(愛)를 버리면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만 버리면 마음이 청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여러 층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구조를 심(心), 의(意), 식(識)의 3층이라고 하고, 유식학에서는 심(心)을 제8식(第八識) 혹은 아뢰야식, 의(意)는 제7식 혹은 말라시, 식(識)을 제6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마음이 3층 구조로 되어있어, 고(苦)를 없애기 위해 유(有), 취

마음구조 心·意·識 3층으로 되어 있어 과거 수많은 생의 기억 아뢰야식에 저장

다. 명이란 마음을 말하며 색(色)이란 물질, 즉 육체를 말한다. 갖난아가 자라서 1-2세가 되면 육체(六處), 즉 눈, 귀, 코, 혀, 피부 및 뇌 등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본성에 의해 외부 세계와 접촉(觸)을 하게 된다. 아이가 3-5세가 되면 자신의 의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외부 세계 현상을 접촉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즉 이때부터 사람은 개체성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동일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서 즐겁거나 괴롭거나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게 된다(受). 성인이 되면 지각(受)의 본성에 의해 드디어 탐(愛)이 생기는데 사람은 애(愛)의 본성에 의해 집착(取)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기쁨이나 쾌락을 경험하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

(取), 및 애(愛)를 버린다고 해도 이때 위치는 마음의 층은 제7식일 뿐이고, 제8식에 묻은 때는 그대로 남는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지만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후 영혼을 중유(中有) 혹은 아뢰야식이라고 불렀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마음 구조가 제6식, 제7 말라시 및 제8 아뢰야식 등으로 되어 있으나, 죽으면 제6식과 제7 말라시는 모두 제8 아뢰야식에 융해되어 저장된다고 하였다.

불교에서는 윤회 원리에 의해 과거 수도 없이 많은 생(生)의 기억이 모두 아뢰야식에 저장돼 있다. 이 저장된 기억들이 현생에 되살아나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본능으로 역할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그림 · 문병성

승복, 범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르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 및 불자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추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 예동승복 직권일동 -

2003 세계불교 서화대상전. 시상 일시 및 장소: 2003년 4월 27일 서울 중로구민회관 대강당. 전시 일시 및 장소: 2003년 4월 26일 ~ 27일 (2일간) 서울중로구민회관 전시실. 주최: 한국, 아세아서화협회. 후원: 일본서도학회, 일본서도전문학교, 중국서법학회, 무도서법학회, 중국관음불학회, 한국불교예술문화원. - 행사계획안내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절골 구조에 날장으로 불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만에 완성.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만화화, 팔공화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불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등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제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